



전북교육청, 열린 행정 구축 '속도' 전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전북교육청>

도·교육청 '도민 삶 바꾸는 행정' 시동

전북도·전북교육청 손잡고 교육·복지 협력 강화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손을 맞잡았다. 이원택 도지사는 19일 오전 생중계 간부회의를 통해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행정협의회를 추진,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특성화고 전략, 농촌 유학, 도내 농산물 각급학교 확대 방안 등과 관련, 전호성 교육감과 대화를 나눴다"고 언급한 뒤 필요하면 교육청과 협약을 맺는 등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여기에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비롯해 농촌 유학 활성화 방안, 특성화고 대책 및 전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민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북형 기본사회 실현' 방안이 논의됐다. 이 지사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아이돌봄 대상 확대, 소상공인 지원, 햇빛소득 마을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서비스들이 규모 부족이나 지연으로 인해 체감도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민이 실제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 기준을 세워 속도감 있게 정책과 사업을 설계하고, 시·군별 특화 영역에는 선택과 집중을 더해 도민 체감도를 극대화하라'고 주문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교육청, 행정 문턱 낮추고 투명성 높인다

전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취임 이후 청사 출입 스피드게이트를 철거하고 주요 간부회의를 전면 생중계하는 등 '열린 행정'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책 결정의 결과뿐 아니라 논의 과정도 도민과 교직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청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전북교육청은 전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지난 7월 28일 주간정책회의를 시작으로 기관장회의 등 주요 간부회의를 매주 생중계하고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책회의 전 과정을 도민과 전 교직원에게 정례 공개하는 것은 전북 교육행정 사상 처음이다.

최근 교직원 2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됐다.

생중계나 다시 보기를 이용한 교직원의 72.2%가 '전북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회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실제 업무 방향 설정과 수행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65.9%에 달했으며, 응답자의 61.4%는 생중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생중계 확대 희망 분야로는 각 부

서 주관 실무 전달회의 및 사업 설명회(35.3%)가 가장 많았고, 주요 교육정책 공청회(27.6%)가 뒤를 이었다.

전북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전달회의의 생중계를 늘려 일선 교직원의 불필요한 출장과 공문 부담을 줄이고, 실시간 자막 도입 등 시청 편의도 개선할 방침이다.

전 교육감은 스피드게이트 철거와 회의 공개에 이어 행정의 중심축을 본청에서 일선 학교 현장으로 이동시키는 조직 정비도 본격화하고 있다.

본청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기획해 학교에 지시하는 관행을 탈피하고, 불필요한 사업과 보고 절차를 줄여 학교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호성 교육감은 "스피드게이트 철거가 물리적 문턱을 낮추는 것이라면 간부회의의 생중계는 정책 논의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유하는 열린 행정의 실천"이라며 "교육행정의 존재 이유는 학교에 있는 만큼 교육청이 사업을 지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본청 기능을 정비하고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지원 역할을 대폭 강화해 '현장이 담고 현장이 기준'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 조직개편안 '후폭풍' 재검토 목소리 고조

본보 보도 이후 이수진 前 전북도의원 공식 의견서 제출

입법예고 7일로 단축...절차 적정성 '도마'

AI홍보국 신설·162명 증원 놓고 타당성 논란·재정 부담 우려

<속보> 전북도의 민선 9기 조직개편안이 급조되고 특정한 내정 의혹이 의심된다는 본보 보도(10월 16일자 1면)와 관련, 갈수록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도가 AI 홍보국을 새로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162명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입법예고 절차 무시, 재정 부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식 의견서가 제출됐다.

행정학 박사인 이수진 전 전북도 의원은 최근 공식 의견서를 통해 "국 신설과 대규모 정원 증원은 행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는 자치행정국을 도민주권국으로, 기업유치지원실을 체감민생경제실 등으로 바꿀 계획인데 이같은 추상적인 명칭으로는 소관 업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기능이 드러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I홍보국 신설과 관련, 인공지능 활용의 필요성이 별도 국 단위 조직 설치까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신설 근거와 업무 효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재정 부담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공무원 16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2027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5년 간 848억 88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전 의원은 "증원 규모의 적정성과 중장기 재정 부담을 검토하고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설되는 AI 홍보국장에 특정한 내정설마저 도청 내에 돌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수진 前 도의원

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됐다. 행정절차법 제43조와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개편안이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해당한다며 예고 기간을 7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이 7일로 그친 데다 신설 조직의 필요성과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 전 의원은 "행정조직은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이번 조직개편안의 일방적 추진에 앞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민선 9기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는데 본청 조직을 현재 15실·국 69과 284팀에서 16실·국 75과 314팀으로 확대하고, 공무원 정원을 일반직 84명과 소방직 78명 등 162명 늘리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국과 AI홍보국을 신설하고, 다음달 전북도의회 정례회에 개편안을 상정해 연말 시행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IFFE 24th
Since 2003 International Fermented Food Expo

제24회 전주국제 발효식품엑스포

International Fermented Food Expo 2026
2026. 10.22. THU - 10.26. MON 전주월드컵경기장

주최 전북특별자치도 |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 JIFB 전북바이오품향산업진흥원 |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 해양수산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10월, 세상을 바꾸는 발효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도, 마늘·양파 재해보험 가입 독려…27일까지

정부·지자체 보험료 최대 85%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법인 대상
겨울 한파·봄철 집중호우 피해 대비

전북도가 19일 가을철 마늘·양파 파종 및 정식 시기를 맞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마늘·양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간은 마늘의 경우 지난 10월 12일부터, 양

파는 10월 19일부터 시작해 모두 11월 27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보험은 겨울철 한파와 가뭄, 봄철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고, 재해 발생 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도내에서 마늘과 양파를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보험 가입 시 생육기간 중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약관에서 정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5~50%는 도와 시군이 지원해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15% 이하만 부담하면 된다. 실제 부담액은 농지 면적과 보험상품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작물의 가입 기간 내 농지 소재지 인근 지역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발생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의 보험 가입을 통해 자연재해에 따른 경영 위험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마늘과 양파는 겨울철 한파와 봄철 이상기후에 영향을 받기 쉬운 작목인 만큼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재배 농가에서는 가입 기간 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김의겸 “김민구, 김건희 국감자료 수정 참여”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황제 조사’에 참여했던 김민구 검사가 공주지청장 재임 당시 공주지청 국정감사를 직전에 앞두고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국정감사 대응 자료’ 수정 등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장형 특검으로부터 국회로 제출받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무마 관련 검사들의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김건희 황제조사에 참여했던 김민구 공주지청장은 24년 10월 14일 17시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관련 국정감사 대비 현안자료 수정 및 보완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뉴스타파’의 관련 보도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는데 당시 뉴스타파에서는 24.10.10부터 “김건희는 주가조작 알았다…사건 인지 57가지 근거” 및 “김건희 새 녹취록”등을 연속 보도해 파장이 있었으며 관련 검토는 해당 보도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 검토 등은 다음날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4년 10월 15일 17시경 김민구 공주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국정감사 현안자료 23쪽 내지 35쪽 수정 및 보완”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



김의겸 의원

졌다. 이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도이치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을 예상하자 김건희 수사 검사들이 김건희 의혹 대응 문건도 검토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소장과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김민구 공주지청장은 자정이 돼서야 “도이치 주가조작사건 관련 국정감사 현안자료 1차 ‘완성본’” 수정 및 보완을 했다고 쓰였다. 공주지청장이 기관장으로 참여하는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대한 국정감사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이치모터스 관련 현안대응에 참여한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공소장에는 ‘최재훈(도이치사건 수사팀 총괄지휘 당시 반부패2부장)은 이창수(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게 김민구 공주지청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시켜 도이치 사건 업무에 참여시키겠다고 보고하고 이창수가 이를 승인하였다’고도 작성됐다. 또 ‘실제로 위 기간 두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은 없었으며, 서울고법 공판기일은 있었으나 김민구는 해당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도 적시됐다.

김 의원은 “특검에서 철저하게 공소유지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명예 홍보대사 광범에 감사패·도민증 수여

2023년부터 전북 홍보대사 활동
고향 홍보·지역 위상 제고 공로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이원택 도지사가 도청 회의실에서 고향 전북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도정 홍보에 기여한 광범 명예 홍보대사에게 감사패와 전북 사랑도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광범 홍보대사의 간간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광 홍보대사는 2023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명예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전주 구도심 상권과 숨은 명소, 지역 고유의 문화 등 전북의 다양한 매력을 대중에게

게 친근하게 알리는 데 기여해 왔다.

전달된 감사패에는 전북의 매력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았다.

도는 광범 홍보대사에게 전북사랑도민증을 함께 전달하고, 이를 계기로 출향 도민들의 고향에 대한 관심과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늘 변함없는 고향 사랑으로 전북의 가치를 빛내주고 계신 광범 홍보대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더 큰 전북’을 만들어 가는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감사패와 전북사랑도민증 수여식에서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광범 전북특별자치도 명예홍보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박지원 “지방의료원 35곳 모두 진료손실…적자 5573억”

박지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9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진료손실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진료손실을 보고 있어 공공의료 지원과 의료원별 운영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5개 지방의료원의 지난해 의료수익은 1조3,369억원으로 전년 1조2,270억원보다 늘었으나 의료비용도 1조7,420억원에서 1조8,942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진료부문에서 발생한 의료손실은 5,150억원에서 5,573억원으로 423억원, 8.2%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5개 의료원 모두 의료손실이 발생했으며, 의료외손익 등을 반영한 이후에도 30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전체 의료원의 합산 당기순손실은 1,678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비수도권 의료원의 합산 순손실이 1,296억원으로



박지원 의원

77.2%를 차지했다.

병상운영 회복도 손실 축소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 전국 지방의료원의 병상이용률은 2022년 40.7%에서 지난해 63.8%로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비수도권 병상이용률은 65.9%로 수도권 57.7%보다 높았지만, 비수도권 의료손실은 전년도보다 16.9% 늘었다.

반복된 손실은 부채와 지급지연으로 누적되고 있었다. 부채총액은 2022년 5,185억원에서 지난해 8,02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부분잠식을 포함해 35곳 중 22곳이 자본잠식 상태였다. 지난해 장기 미지급금은 320억원, 임금·수당 지급지연액은 80억원으로, 거래처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차입과 퇴직급여 재원 확보도 과제다.

제출자료의 비유동부채 중 금융기관·지역개발기금 차입계정 잔액은 2022년 752억원에서 올해 제출시점 1,617억원으로 증가했다. 별도 공통 비교대상인 34개 의료원의 퇴직급여충당부채 대비외부 적립비율은 2022년 51.4%에서 지난해 44.2%로 하락했다.

특히 올해 중장기 적립계획에서 21개 의료원이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에 연계한 적립 방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35곳 중 30곳이 순손실을 기록한 상황에서 퇴직급여 재원 확보를 미래 흑자에 의존하는 계획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객관적으로 산정해 보전하되, 진료수익 회복이 재정개선에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과 의료원 자체의 개선과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김윤덕 “문화예술 지원 수도권 편중 개선해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가가 지원하는 문화 예술 공연과 예술인 복지 정책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 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예술인 복지 정책인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은 서울에만 2곳의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예술인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승인은 수도권에만 86.8%가 집중됐다. 또한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도 전체 242개 신청 단체 중 최종 선정된 60개 단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단체가 총 46개(서울 37개, 경기 8개, 인천 1개)로 전체 선정 규모의 약 76.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역별 예술활동증명 2025년 현황을 보면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이 209,934명이며, 서울 지역 거주자가 75,469명으로 전체의



김윤덕 의원

3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64.0%에 달하는 134,465명의 예술인이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전북은 6,649명으로 3.2%를 차지하고 있다.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은 예술인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24개월부터 10세까지의 자녀를 시간제로 돌봐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예술인 자녀 돌봄 센터는 서울 종로구(대학로, 만리 돌봄 센터, 연간 1,902명)와 마포구(망원동, 옛봄 센터, 연간 2,688명)로 서울에만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예술인의 64%에 달하는 비서울 지역 예술인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은 심사를 통과한 공연예술 단체에게 매해 5

천만 원에서 3억 원씩 3개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역시 수도권 편중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2025년 전체 242개 신청 단체 중 최종 선정된 60개 단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단체가 총 46개(서울 37개, 경기 8개, 인천 1개)로 전체 선정 규모의 약 76.7%를 차지한 반면 비수도권 소재 단체는 14개(23.3%)가 선정되는 데 그쳤다. 전북의 경우는 6개 단체가 지원하여 3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예술인 복지 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술인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도 2025년 전세자금 계약자 114명 중 수도권 비율은 86.8%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출 계약자는 단 15명에 불과했으며, 대구, 광주, 울산, 경북 등 4개 시도에서는 이용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북은 단 한 명이였다.

김 의원은 “더 크게 우대해 드려야 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잘못된 제도로 차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완주군 공고 제2026-1758호

구이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구이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완 주 군 수

1.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구이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나.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1506-7번지 일원
다. 계획면적 : 25,309㎡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목적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나. 기간 : 2026. 10. 20. ~ 2026. 11. 20.
다. 공람장소 : 완주군 체육공원과, 구이면행정복지센터
○ 완주군 홈페이지(<http://www.wanju.go.kr>)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고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까지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서면(書面) 제출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제출

4.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개최일시 : 2026. 10. 30. 14:00
나. 개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1488-5(구이정담센터)
다. 주요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내용

5. 기타사항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및 공고문 등은 완주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체육공원과(☎063-290-39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2026년산 공공비축미 1695톤 매입

지난해보다 346톤 감소 포대당 중간정산금 6만원

전주시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생산된 공공비축미 매입에 본격 나선다. 시는 오는 11월 5일부터 23일까지 2026년산 공공비축미 1695톤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올해 배정된 매입 물량의 지난해 매입량보다 346톤 감소한 1695톤으로, 시는 △건조포대벼 1126톤 △산물벼

271톤 △가루쌀 298톤을 매입할 예정이다. 올해 매입 물량 중 건조벼는 지난해보다 349톤 감소했으며, 산물벼는 59톤 증가했다. 또, 가루쌀 재배 면적 감소에 따라 가루쌀 매입량도 56톤 줄었다.

매입품종은 일반벼 2품종(신동진, 참동진)과 가루쌀 1품종(바로미2)이다. 시는 동별 매입량 및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총 4개 권역별로 나눠 매입하고, 매입한 미곡은 전주시 정부양곡관

리창고(4개소)에 분산해 비축할 예정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되며, 농업인에게는 우선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 기준)당 6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한 후 오는 12월 말 최종 정산 금액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단,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할 경우에는 향후 3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공공

비축미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매입 품종을 반드시 확인해 공공비축미 품종 외 다른 품종의 벼를 출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노은영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공비축미 매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출하 농가는 신동진과 참동진 품종을 확인해 출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통합돌봄 대상자 보조기기 무료 대여

시·전북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 지원 협력체계 구축

전주시가 통합돌봄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수동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기를 무료로 대여한다.

시는 19일 전북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와 통합돌봄 대상자 보조기기 대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일상생활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조기기 지원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보조기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담당하고, 전북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는 보조기기 대여와 맞춤형 개조·제작, 활용 교육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수동휠체어·하이워커 등 이동보조기기 장기대여 △목욕의자·안전손잡이 등 다양한 보조기기 단기대여 △개인별 필요에 따른 보조기기 맞춤형 개조·제작 △안전한 사용을 위한 활용 교육 등이다.

보조기기 대여료는 무료이며, 개조·제작에 필요한 재료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시는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와 연계해 대상자가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사회 내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재난 대응능력 키워 시민 안전 확보

재난관리자원 실제 동원 돌발상황 대응 훈련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최근 전국적으로 화재 등 복합재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전주시가 소방·경찰·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시는 19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시청 재난상황실과 호성동 순복음침사당교회 일원에서 건물화재로 인한 대형산불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시와 전주덕진소방서가 공동 주관한 이날 훈련에는 덕진경찰서와 군부대, 전력·가스·통신 관계기관, 의료기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240여 명이 참여해 재난 발생부터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까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진으로 다중이용시설에 화재가 발생하고, 강풍을 타고 인근 산림으로 불이 번지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산불이 산림인접마을과 요양병원 등 재난취약시설을 위협하는 가운데 정전과 통신장애까지 발생하는 연쇄적인 재난 상황을 가정해 기관별 대처와 해결을 위한 협업 능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실제로 전주지역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3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지진 역시 전세계적으로 잦아지는 추세다. 이에 시는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지역 내 산불 발생을 가정해 이번 훈련상황을 설정했다.

조지훈 전주시장도 이날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토론훈련을 직접 주재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체계와 관계기관별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조 시장은 △상황 접수·전

파 △상황판단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이어 산불 확산에 따른 대피 결정 △부족한 인력·장비의 지원 요청 △기반 시설 복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점검했다.

훈련 현장에서는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응급환자 분류·이송, 교통·출입 통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등 실제 대응절차가 수행됐다.

또한 이날 훈련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 등을 활용해 상황실과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현장 보고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의사결정과 자원 지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이어, 통신장애 발생 시 대체 통신수단으로 전환하는 절차도 훈련이 진행됐다.

시는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한 긴급차량 진입 장애와 건물 추가 붕괴 등 돌발상황을 반영해 현장 대응의 실질성을 높였다. 참여기관들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고, 재난관리자원을 실제로 동원·운용하며 공동 대응절

차를 숙달했다. 이와 동시에 산림 인접지역 주민과 재난취약계층의 대피체계 점검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본훈련에 앞서 왜망실마을과 더숲요양병원에서 산불에 의한 사전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주민 대피경로와 고령자·거동불편자 지원, 환자 상태별 이송 및 대피인원 확인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본훈련에 반영했다.

시는 이번 훈련 평가와 참여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상황전파, 현장 지휘, 대피지원, 자원 동원 등의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재난 대응 매뉴얼과 후속 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지훈 시장은 “산불이 주거지역과 의료시설을 위협하는 복합재난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피 판단과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에서 확인한 보완사항을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금융도시 정주여건 개선 ‘현장점검 넘어 실행으로’

현장점검 이후 교통·생활환경 등 개선 요청사항 관계부서 검토

전주시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앞두고 혁신도시 생활인프라 현장점검에 이어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대중교통과 도로·보행환경, 생활안전 등 주요 요청사항에 대해 관계부서별 검토 의견을 취합하고, 과제별 실행 가능성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국민연금공단 등과 함께 혁신도시 및 명성지구 일원에서 금



전주시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앞두고 혁신도시 생활인프라 현장점검에 이어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전주시>

금융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및 관계법령 검토 등을 거쳐 과제별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요구사항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산업지도를 바꿀 핵심 과제이며, 이번 현장점검은 금융기관 종사자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연금공단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그간 준비해 온 전주의 집적된 금융도시 역량을 보여주고, 반드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 대학생과 반려식물로 초록 일상 만든다

반려식물 화분 만들기 체험 운영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은영)는 지난 16일과 19일 각각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에서 ‘대학교로 찾아가는 반려식물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 주역인 대학생들이 일상에서 식물을 쉽게 접하고 직접 돌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개 대학에서 총 200명 규모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체험부스에서 직접 반려식물 화분을 만들고, 식물들 돌 공간의 햇빛과 평소 생활패턴 등 자신의 생활환경을 살펴보고 적절한 관리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특히 학생들이 식물을 단순히 반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든 화분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관리카드도 제공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반려식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6일과 19일 각각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에서 ‘대학교로 찾아가는 반려식물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사진=전주시>

물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식물들 처음 키우는 학생도 물주기와 빛 관리 등 기본적인 관리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식물을 가꾸는 경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시는 올해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 직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와 질 관리 등 기본적인 관리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식물을 가꾸는 경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반려식물 관리 실태와 일상생활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 향후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반려식물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203명을 대상으로 1개월 후 설문조사를 실시, 응답자의 80.3%가 ‘반려식물을 돌보는 생활이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또, 77.8%는 ‘정서적 안정과 일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꼽았으며, 91.1%는 ‘앞으로 반려식물 돌봄을 지속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참여를 권유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전주시 농업기술과 관계자는 “반려식물 한 화분을 직접 키워보는 작은 경험이 식물과 자연에 관심을 갖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학생들이 이번 체험을 계기로 일상에서 식물을 가까이하고, 이러한 관심이 도시농업을 보다 친근하게 접하는 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미국 건축사 강연 참가자 모집

‘처음 만나는 예술’ 건축 분야강연

전주시는 오는 11월 6일 서학예술마을도서관에서 열리는 ‘처음 만나는 예술’ 강연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처음 만나는 예술’은 서학예술마을도서관이 올해 새롭게 기획한 강연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 분야를 소개하기 위해 그 분야의 유명인사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강연은 지난 3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이다.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강연에는 ‘한 권으로 읽는 임석재의 서양 건축사’와 ‘한 권으로 읽는 임석재의 미국 건축사’ 등 다양한 건축 관련 도서를 저술한 임석재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가 강연한다.

임 교수는 ‘처음 만나는 미국 건축사’를 주제로 수십 개의 건축 양식을 가진 미국의 건축역사를 식민시대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시간순으로 살펴보고, 참석자들이 넓게는 미국 문화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강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서관 누리집(lib.jeonju.go.kr) 통해 온라인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김인택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서학예술마을도서관은 다양한 예술 분야 강연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시민들이 건축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 하반기 AI 로봇·드론 교육 진행

전주시가 맞춤형 AI 로봇·드론 교육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갈 지역 인재 육성에 나섰다.

시는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일간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에서 코딩 교육을 강화한 ‘2026년 하반기 인공지능(AI) 로봇 및 드론 융합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하반기 교육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전주중앙초등학교 14명(19일)과 전주아중초등학교 25명(20일), 전주풍남초등학교 24명(21일) 등 총 63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시는 지난 6월 운영된 상반기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당시 다소 미비했던 코딩 교육 분야를 이번 교육에서는 대폭 보완했다.

특히 학생들이 단순히 기기를 조작하는 것을 넘어, 미래 핵심 기술인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제어하는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습 심화 과정의 비중을 높였다.

프로그램은 총 120분 동안 이론과 체험을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진행된



다. 학생들은 먼저 30분간 진행되는 이론 과정을 통해 AI의 정의와 작동 원리, 미래 세대가 갖춰야 할 AI 윤리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한다.

이어 90분간 진행되는 체험 과정에서는 로보마스터와 펠로 등 최신 교보재를 활용하며, 블록 코딩을 기반으로 학생이 직접 프로그래밍한 명령값에 따라 로봇과 드론이 미션을 수행하는 심층 실습을 경험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번 교육은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의 첨단 인프라를 다각도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1층 로비와 교육장, 2층 경기장 등 공간별로 특화된 AI 로봇 및 드론 미션 체험존을 구축해 학생들의 몰입도를 극대화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방사성의약품 육성 본격화

바이오 얼라이언스 포럼 개최...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생태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5극 3특 성장엔진' 핵심품목으로 선정된 방사성의약품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관 협력 강화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정읍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2026 전북 바이오 얼라이언스 포럼'을 개최하고, 방사성의약품 산업 발전 전략과 K-라디오파마 산업거점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방사성의약품으로 여는 전북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주제로, 정읍의 방사선 연구 기반과 도내 바이오 산업 역량을 연계해 연구개발부터 생

산·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지성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정읍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도내 대학, 바이오기업 관계자와 국내외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은 방사성의약품이 정부의 '5극 3특 성장엔진' 핵심품목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확보했다. 특히 정읍의 방사선 연구 인프라를 중심으로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4일에는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인 ㈜듀켄바이오와 343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포럼은 전북 방사성의약품 산업

육성 비전을 공유하는 얼라이언스 선포식으로 시작했다.

이어 정병엽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장이 '정읍 방사성의약품 산업기반과 전북 바이오 육성전략'을 발표하며 지역의 산업적 강점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전문가 강연에서는 최학수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가 차세대 테라노스틱스 기술과 방사성의약품의 미래를 소개하고, 전중호 경북대학교 교수가 방사성의약품의 진단·치료 활용 사례와 최근 기술 동향을 설명했다.

이어 김중우 ㈜듀켄바이오 부회장은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치료제(RPT) 사업전략과 차세대 산업의 성장 조건을 주제로 기업 관점에서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이병철 대한방사성의약품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연구기관

과 기업, 학계 및 임상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북이 K-라디오파마 산업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연구개발, 생산 기반, 전문인력 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읍의 방사선 연구 역량과 기업 투자 등을 연계해 방사성의약품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성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포럼은 최근 5극 3특 성장엔진으로 선정된 방사성의약품의 확장적인 생태계 육성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마련됐다"라며, "전북이 방사성의약품 생태계의 전략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농협, 추곡 수매현장 찾아 현장경영

농업인 및 임직원 격려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지난 19일 김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문재일, 이하 "김제통합")을 비롯, 추곡 수매가 한창인 도내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비건조저장시설(DSC)를 방문해 현장경영을 펼쳤다.

이번 현장경영에는 전북농협 김성훈 총괄본부장, 김제농협 이정용 조합장, 김제통합 문재일 대표이사 등 추곡 수매 농협이 함께한 가운데,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폭우 등 여러

운 여건에도 영농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농업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추곡 수매농협 임직원 및 농업인들과 함께 쌀로 만든 가공품을 나누며 쌀 소비촉진을 위한 농심전심 운동도 병행했다. 추곡 수매 현장경영은 전북 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23일까지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수매 시 농업인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트럭과 지게차 등 움직임이 많으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농업인들의 한 해 동안 흘린 땀의



결실이 헛되지 않도록, 전북농협 임직원들과 함께 전사적인 농심전심 운동을 전개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도 '글로벌 금융도시' 도약 속도

독일계 DWS자산운용 전주사무소 개소

전북특별자치도는 DWS자산운용이 전북혁신도시에 전주사무소를 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외른 바이서트(Jörn Beißert) 주한 독일대사관 부대사를 비롯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이

태영 DWS자산운용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2002년부터 한국 법인을 운영해 온 DWS자산운용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채권, 해외 부동산, 해외 주식 등 다양한 자산군에서 사업을 전개해 온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다.

이번 DWS자산운용의 전북 진출은 단순한 지역 거점 확장을 넘어 전북이 유례해 글로벌 금융자본과의 접점을 넓히

고, 국제 금융 네트워크를 다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문을 연 전주사무소는 국민연금공단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DWS가 보유한 글로벌 투자 경험과 자산운용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금융 생태계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소를 계기로 전북이 글로벌 자산운용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운용사에 필

요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유희숙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한국 시장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글로벌 금융리더 DWS자산운용의 전주사무소 개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글로벌 금융자본이 주목하는 전북에서 DWS자산운용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가 든든한 동반자가 돼 성장의 길을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농협전북본부·동진강낙농축협 나눔축산운동지역사랑실시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과 (사)나눔축산운동본부는 동진강낙농축협(조합장 심재원)과 함께 19일 김제시청을 방문해 '나눔축산운동 지역사랑·이웃사랑 복지후원 나눔 실천 사업' 행사를 실시하고, 지역 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멸균우유를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고 축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성주 김제시장장을 비롯한 김성훈 전북농협 본부장, 강대연 농협 김제시지부장, 심재원 동진강낙농축협 조합장 및 임직원 등이 참석해 김제지역 4개 복지시설에 400만원 상당의 멸균우유를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김성훈 본부장은 "이번 나눔이 지역 사회 소외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축산운동을 통해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농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도, 퍼지컬AI 혁신기업과 소통

현장 애로사항 청취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퍼지컬AI 혁신기업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AI·로봇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퍼지컬AI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퍼지컬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로봇 연구 거점 구축을 위해 국회와 전북도,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조혁신퍼지컬AI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고정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와 정동영 국회의원, 협회 관계자 및 AI·로봇 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제도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퍼지컬AI 연구개발부터 산업 현장 실증과 사업화에 이르는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서 '퍼지컬AI·로봇 조찬포럼'과 기업 간담회,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산업계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이어왔다. 이번 간담회 역시 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 육성에 필요한 협력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앞으로도 제조혁신퍼지컬AI협회와 협력해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국회와 관계부처, 산업계와 함께 로봇 연구 거점 구축과 퍼지컬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정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퍼지컬AI 기술개발과 실증 기반 조성은 제조 현장의 수요와 애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사진=농진청>

농진청, 배 '신고' 열매 터짐 기술 지원

수확기 안정 생산 방안 보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은 19일 경기 안성의 배 '신고' 재배 농가를 찾아 수확기 열매 터짐 발생 현황을 살피고, 기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신고'는 맛과 저장력이 우수해 추석용과 저장용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배 품종이다. 올해 8-9월에는 고온과 급격한 수분 변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와 충남 지역에서 수확기 열매 터짐 피해가 발생했다.

김 원장은 배 주산지 경기 안성 지역의 '신고' 열매 터짐 발생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 저감 기술을 설명했다. 또한, 현장에서 만난 농업인들과 실효성 있는 기술 개발과 보급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원장은 안성·천안 지역 배 열매 터짐은 7-8월 고온과 적산온도 조기 증가, 수확 전 강우 등 이상기상 영향 탓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준호 기자

농어촌공사 새만금산단사업단, 장수사진 봉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은 19일, 군산시 내초동에 위치한 아펜젤러 사랑의 집에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단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편안하고 밝은 모습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으며, 장수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한 사진 촬영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과 추억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 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으로서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수 사업단장은 "이번 장수사진 촬영이 어르신들께 기쁨과 따뜻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을 이어갈 예정이다.

/군산=지승길 기자

“폐교 활용, 지역의견 적극 수렴해야”

천호성 교육감, 주간 정책회의서 행정 간소화 주문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방치된 폐교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익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역 거버넌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행정 절차를 과감히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천 교육감은 19일 열린 주간 정책회의에서 ‘폐교 활용(대부)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단순히 공고만 낼 것이 아니라 지역 교육거버넌스 등과 연계된 주체들에게 충분히 홍보해 실질적인 공익 사업을 제안받아야 한다”며 “복잡한 서류 절차를 지양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형태의 임대와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전국 폐교 활용 경진대회’에서 전북은 임실교육지원청의 ‘임실 생태누리’와 부안교육지원청의 ‘닥나무 한지체험관 콩닥콩닥’ 등 2건이 전국 35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3일까지 대국민 투표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3~4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천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천 교육감은 “단점은 보완하면서 역량 있는 교장이 학교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개방형·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더욱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의 2027년 3월 1일 자 교장공모제 대상은 초등 43개교, 중등 29개교이며, 결원 학교의 3분의 2 범위

<사진=전북교육청>

내에서 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2027학년도 전북 고입전형 본격화

마이스터고 접수 시작 132개교 1만6678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19일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2027학년도 도내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에 본격 돌입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고입전형을 통해 도내 132개 고교에서 총 1만 6678명을

모집한다.

첫 전형에 들어간 마이스터고는 군산기계고, 전북기계고, 한국경마축산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등 4개교로 선발 인원은 총 416명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이며, 합격자는 내달 4일 오전 10시 발표한다.

이어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내달 6~10일, 일반전형은 내달 23~25일 접수를

행하며, 일반고는 12월 21~23일 원서를 받는다.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공립고 선발 예정 심사는 내달 2~5일 신청을 거쳐 내달 18일 결과를 통보한다.

올해는 지체장애인·희귀병 질환자 선발 대상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인정증명서 제출자’를 새롭게 포함했다.

전북교육청은 고입지원시스템을 가동해 일선 학교의 진학상담과 원서 접

수를 지원하는 한편, 전기·후기고 지원에 따른 이종지원 금지 규정과 지원 학교별 세부 요강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임산 중등교육과장은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고 학교 현장의 전형 업무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고입전형이 끝날 때까지 체계적인 현장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사진=한중문화협회>

문지담,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금메달’

전주스포츠클럽 소속

지난 1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경기 첫날 전주스포츠클럽 문지담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문지담 선수는 월등한 기량으로 상대 선수를 압도, 제압하며 16강에서 서울 박경미 선수, 8강에서 광주 이지을 선수, 4강에서 강원도 한소은 선수, 결승에서 경남체고 김유경 선수를 이기고 값진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했다.

문지담 선수는 평소 힘든 훈련을 묵묵히 스스로 소화하며 지난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에서 부진을 털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 낸 장한 전북의 태권도 유망주이다.

문지담 선수는 “다시 세계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최선을 다하는 멋진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문형호 코치는 “딸이며 제자인 지담이가 실패를 이겨 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힘들었는데 지담이 자신이 바라는 성적을 거둬서 다행”이라며 “새롭게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그간의 고생을 한번에 날려보냈다”고 했다.

/정정철 기자

익산시 ‘K-라면과 구공탄’ 순회전

익산시는 오는 11월 29일까지 익산역 전시실에서 라면의 역사와 서민 문화를 조명하는 ‘K-라면과 구공탄’ 순회전시회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익산문화관광재단과 서울 도봉문화재단 둘리뮤지엄이 손을 맞잡고 문체부 ‘뮤지엄 이음’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대한민국 최초 라면 공장이 자리했던 서울 도봉구의 역사적 상징성과 현재도 라면 산업을 이어가는 익산시의 인연을 국민 캐릭터 ‘둘리’를 통해 흥미롭게 엮어냈다. 특히 익산은 반세기 동안 한국 라면의 역사를 지켜온 삼양식품의 핵심 생산기지이자 종합식품기업 하림의 라면 생산라인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K-푸드’의 수도다.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단순한 추억 소환을 넘어, 라면 산업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익산의 정체성을 널리 알린다는 구상이다.

전시는 전시실 관람에 그치지 않고 익산역 앞 원도심 상권을 즐기는 ‘맛있는 골목 투어’로 이어진다.

코스를 완주하면 익산역 앞 이색 라면 복합문화공간인 ‘보글하우스’ 시식 체험권을 받는다. 참가자들은 보글하우스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레시피로 직접 라면을 끓여 먹으며 오감만족의 특별한 여정을 완성한다.

아이들을 위한 맞춤 교육도 알차다. 오는 25일까지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전시 투어와 ‘나만의 라면 포장지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정겨운 추억을 선사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삼양과 하림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품 기업들의 터전인 익산에서 둘리와 함께하는 특별한 문화 축제가 열려 의미가 남다르다”며 “익산역 앞 보글하우스와 원도심 골목길을 걸으며 맛보고 즐기는 풍성한 가을 나들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립국악단 창극 ‘정인’ 공연

22~23일 공연 선행

정읍시는 오는 22일과 23일 오후 7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시립국악단의 기획공연 ‘정인(情人)-달빛에 걸려둔 약속’을 무료로 선보인다.

‘정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백제 가요 ‘정읍사’에 담긴 기다림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창작 창극이다. 사랑하는 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달에게 비는 여인의 마음을 바탕으로, 전쟁으로 헤어진 연인 ‘아라’와 ‘마루’, 아라를 향한 마음이 점차 집착으로 변해가는 ‘길손’의 엇갈린 운명과 애절한 사랑을 그린다.

이번 공연에는 최고의 신한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창작진이 힘을 모았다. 국립창극단 소속이자 동아국악콩쿠르 금상 등을 수상한 소리꾼 유태평양이 작창을 맡아 전통 소리의 매력을 더한다.

여기에 2020년 KBS 국악대상 작곡상을 받은 김창환 예술감독의 음악과 채향순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의 안무, 박주희 극 작가의 참여가 더해져 소리와 음악, 춤,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무대를 마련했다.

작품은 거대한 전쟁 서사 이면에 자리한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에 주목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입장권은 각 공연 당일 오후 5시부터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 문화유산인 ‘정읍사’의 정서가 세련된 창작 창극으로 재탄생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공연장을 찾아 시대를 뛰어넘는 사랑과 감동의 순간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전북대, 전북현대 홈경기서 단체응원

전북대학교 구성원 2,000여 명이 지난 1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모터스와 제주SK의 경기에서 대규모 단체 응원전을 펼쳤다.

이번 응원전은 2015년 전북대와 전북현대모터스가 체결한 교류 협약에 따른 연례행사로 진행됐다.

전북현대대는 매년 하루를 ‘전북대인의 날’로 지정해 대학 구성원을 홈경기에 초청하고 있다.

이날 경기장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 교직원 및 가족, 외국인 유학생과 재학생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 시작 전에는 양 총장과 총학생회장이 시축을 맡아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북현대대는 티아고의 멀티골 활약 등에 힘입어 제주를 3대 2로 제압하며 응원에 나선 대학 구성원들에게



<사진=전북대학교>

승리를 안겼다.

양오봉 총장은 “학생과 교직원, 외국인 유학생이 한목소리로 지역 연고 구단을 응원하며 소속감과 자긍심을 다진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지속해서 확대해 거점구립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가을철 호흡기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

1. 외출 후 손 씻기



2. 마스크 착용하기



3. 실내 습도 조절 (50~60%)



4. 충분한 수분 섭취



정읍의 환경교육 시민에게 길을 묻다

정읍시는 지난 16일 수성동 주민센터 컨벤션홀에서 “2026년 정읍시 시민 참여 환경교육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시가 추진 중인 ‘환경교육 시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정 중심의 정책을 넘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과제와 실천 방안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사는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용환 상임대표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용환 상임대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야 지속 가능한 정읍을 완성할 수 있다”며 활발한 토론을 당부했다.

이어 이학수 시장은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정읍을 위해 시민과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오늘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시 환경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교육 시범도시 사업 소개와 안내 교육(오리엔테이션)을 마친 뒤 참석자들은 10개 원탁으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했다. 주요 의제는 △기후·에너지와 안전 △자원순환과 생활환경 △농업과 농촌 환경 △생태와 물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 등 5가지였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은 “수렴한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리해 오는 11월 열리는 ‘정읍형 환경교육 모델 발굴을 위한 포럼’과 연계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의 삶 담은 민간 기록 30일부터 무료 전시

익산시는 오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습리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제6회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전시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개막 첫날인 30일 오후 3시에는 중공연장에서 개막식과 시상식을 연다. 소중한 기록물을 기증해 도시의 정체성을 함께 채워준 시민들을 축하하며 한 달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환승기록: 익산편-길에서 만난 기록’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시민 57명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2117점 중 사료적 가치와 삶의 온기가 담긴 1,200여 점을 엄선해 선보인다.

익산에서 ‘기록’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역과 길을 따라 마주했던 사람들의 발자취이자, 평범한 시민의 일상이 모여 공동체의 유산이 되는 살아있는 역사다.

전시 공간은 도시 정체성과 시민들의 삶의 궤적을 조망하기 위해 △교통 △문화 △종교 △교육 △생활 △상시기증 등 6개 분야로 입체감 있게 나뉘었다.

전시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수집된 민간 기록물은 익산시민역사기록관 누리집에 등록돼 영구 보존되며, 향후 지역사 연구와 교육 자료로 다양하게 쓰일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청소년의 특별한 1박 2일 ‘진로멘토링 대학탐방’ 성료

정읍시가 대학 재학생과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을 직접 만나는 진로 탐색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미래 설계를 도왔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고등학교 1~2학년 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진로멘토링, 내 꿈의 대학탐방’을 운영했다.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과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로 목표와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한 활동이다.

참여 청소년들은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방문해 대학 곳곳을 둘러보고 재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직업인들과의 만남도 이어졌다.

청소년들은 직업인들의 경험을 통해 실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적성과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학 탐방이 청소년들이 다양한 전공과 직업을 접하고 자신의 꿈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도로 안전 지킨다” 2(題)

공공하수도 정비 체계 가동

익산시가 빗물받이 막힘과 도로 위 맨홀 파손 등 일상에 시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도심 하수 시설의 기능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시민 불편을 덜어내기 위해 자체 준설 인력을 동원한 ‘공공하수도 현장 중심 신속 정비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하수도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도심 배수와 악취 방지를 책임지는 핵심 시설이다.

특히 도로변 빗물받이에 쌓인 담배꽂초와 흙더미는 집중호우 시 침수의 주원인이 되며, 도로면과 낮낮이가 맞지 않아 덜컥거리는 맨홀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에 시는 숙련된 자체 준설원 12명을 4인 1조 총 3개 기동반으로 편성해 상시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악취가 자주 발생하는 주택가 골목길은 연결 하수관의 끼여끼기를 차례로 걷어내 쾌적한 공기를 되찾아줄 계획이다.

지반 침하 등 대규모 굴착이 필요한 복잡한 구간은 별도 전문 공사와 연계해 빈틈없이 고쳐나간다.

임문택 시 하수도과장은 “하수도 막힘이나 맨홀 파손은 시민들의 일상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한발 앞선 현장 정비가 필수”라며 “작은 불편이라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 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리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체납 차량 집중 영치 추진

익산시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납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연말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집중 영치 및 징수 활동’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단속을 강화하는 주된 이유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차량 과태료의 대부분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정기 검사 지연에서 비롯된다.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이 사고를 내면 피해를 입은 무고한 시민이 치료비와 보상을 제때 받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또 제때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 차량은 도로 위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특히 전체 체납액 중 30만 원 이상의 고질적인 고액 체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제때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성실 납부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2개월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변호관 영치를 전격 단행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로 체납 차량의 주요 이동 경로와 출몰 지역을 정밀 분석하는 등 과학적 기법을 동원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고,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도시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민원 진행 상황 ‘한눈에’

누리집 ‘시민 중심’ 구조로 전면 재설계

군산시(시장 김재준)가 전면 개편 중인 시 누리집을 시민이 민원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조건별로 찾을 수 있는 ‘시민 중심’ 구조로 바꾼다.

시는 지난 9월 말 열린 202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김재준 시장이 “민원 진행 상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안내하고, 시민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러”고 지시한 데 따라 설계변경 방침을 확정했다. 누리집 전면개편은 지난 8월 착수해 내년 4월 완료 예정으로, 사업비는 7억 1,200만 원이다.

당초 개편안은 디자인과 메뉴 구조를 새롭게 단장하고 인공지능(AI) 챗봇

으로 24시간 민원 상담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러나 민원을 신청한 뒤 어디까지 처리됐는지는 여전히 시민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했고, 필요한 정보도 게시판별로 따로 검색해야 했다.

이번 설계변경은 이 두 가지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민원이용 경로를 하나로 잇는다. 시민이 민원이나 정책·혜택을 검색해 본인 확인 후 신청하면, 접수·배정·처리 단계부터 결과까지 한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 알림톡을 연계해 단계별 처리 상황도 휴대전화로 안내한다.

서류 제출 부담도 줄인다.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보건소 영양플러스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같은 사업을 신청할 때 시민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던 증빙 서류를 본인 동의 아래 행정기관 간 정보 연계로 대신한다.

정보 탐색 방식도 바뀐다. 게시물마다 분야·대상·지역 기준을 부여해 맞춤형 검색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 가족 행사’를 찾으면 문화·관광 분야와 어린이·가족 대상 정보가 함께 검색된다. 시정 행사와 일정은 지도 기반으로 통합 제공해 장소와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준 시장은 “시민이 민원을 넣고 나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전화로 물어봐야 하는 구조는 시민주권도시에 맞지 않는다”며 “누리집이 시민이 시정을 확인하고 참여하는 창구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의회, 주요 현장 방문 점검

김충영 의장, 민원 청취 및 해결책 모색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장이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안을 직접 챙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충영 의장은 최근 13일부터 16일까지 지역 내 주요 현장 세 곳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 의장은 상인들과 방문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중앙시장 비둘기 출몰 지역을 찾았다.

현장에서 상인들의 고충을 세심하게 청취한 의장은 “전통시장은 많은 시민이

찾는 공간인 만큼 위생과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서와 협력해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중동에 위치한 익산시민원플센터를 방문해 전화를 통해 민원안내를 하고 시민 생활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담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들을 따뜻하게 격려했다.

김 의장은 “갑정 노동으로 지치기 쉬운 환경 속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 응대를 해주시는 상담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다”면서 “근무 환경 개선과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웅포캠핑장을 방

문했다. 김충영 의장은 캠핑장 내 주요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한편, 현장을 찾은 이용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시설물 노후로 인한 불편, 예약시스템 이용 시 개선해야 할 점 등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그리고 캠핑장 관계자에게 “시민들과 익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힐링하고 가실 수 있도록 세심한 시설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김충영 의장은 “오늘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들과 건의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정읍시>

정읍시, 시청 안에 작은 단풍숲

지역특색 담은 풍경마련

정읍시가 시청 안에 작은 단풍숲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단풍 1번지 정읍’의 가을 정취를 전한다.

최근 청사 입구 안쪽에 마련한 정원은 여러 그루의 단풍나무와 아까, 돌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꾸몄다. 넓고 낮은 화분 안에 높낮이와 줄기를 모양이 서로 다른 나무들이 자리 잡아 작은 숲을 이룬다.

나무 아래에는 푸른 이끼를 깔고 곳곳에 돌을 놓아 자연의 풍경을 담았다. 이끼 사이로 이어지는 작은 길은 아담한 숲길을 떠올리게 한다. 가까이에서는 단풍잎의 섬세한 모양과 가지가 뻗은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어,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정원의 다양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정읍을 상징하는

단풍을 시민들의 일상과 가까운 공간에서 함께 즐기자는 뜻을 담았다. 시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청사에 지역의 특색을 담은 풍경을 마련해 정읍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전하고자 했다.

민원 처리나 업무를 위해 시청을 찾은 시민들은 오가는 길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를 감상할 수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눈에 담고,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정을 찾은 시민들이 단풍을 바라보며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얻어 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

11월 16일까지

익산시는 병원 이용이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 복지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1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를 집중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7일 오산농협에서 주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첫 번째 왕진 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어 오는 11월 12일에는 북익산농협에서 함열읍·용안면·용동면을 찾아가고, 11월 16일에는 성당농협에서 성당면 주

민들을 위한 왕진에 나선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익산시가 손을 맞잡고 추진하는 민관 협력 의료 복지사업이다.

진료에는 원광대학교 한방병원과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등 지역 기관이 힘을 모은다. 이천권 시 농촌활력과장은 “앞으로도 농촌 마을 곳곳의 의료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 예방 협력 강화

군산경찰서는 군산시 노인회를 방문해 이례법 군산시 노인회장과 환담하고,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및 범죄예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군산경찰서장 취임 후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위한 초도 방문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 등 어르신 대상 범죄의 예방 필요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산시 노인회는 약 3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 노인회와의 협력은 어르신들에게 범죄예방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경찰서는 앞으로도 군산시 노인회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선원 군산경찰서장은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김개남 장군 추모제 열어

동학농민혁명의 핵심 지도자 김개남 장군의 순국 132주기 추모제가 정읍에서 열려 장군의 뜻과 혁명의 정신을 되새겼다.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이복형 시의회 의장,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 송기수 이사장, 정읍시 유족회 김형무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유족과 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을 포함해 3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시작으로 추모사와 전통 제례, 분향·제배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산외면 출신인 김개남 장군은 전봉준·손화중 장군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다. 1894년 3월 백산에서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한 동학농민군의 지휘관인 총관령으로 추대됐다. 같은 해 9월 농민군이 다시 봉기한 뒤에는 군사를 이끌고 청주 병영을 공격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정읍 산내면 종성리 일대로 피신하던 중 체포돼 전주감영으로 끌려갔고, 음력 12월 3일 전주에서 처형돼 순국했다. 당시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으며, 현재 산외면 동곡리 묘역은 1995년 후손들이 유해 없이 조성한 무덤인 가묘로 관리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장군의 실천과 뜻을 기리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올바르게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남원시,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 건의

전북권 말산업 클러스터 협력 제안 글로벌캠퍼스 인접지9만㎡제시 전담팀·정착금 등 지원책 설명

양충모 남원시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18일 한국마사회 본사를 방문해 한국마사회장에게 마사회 본사의 남원 이전을 건의하고 전북권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 구상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관심과 협력도 요청했다.

남원시는 본사 이전 후보지로 전북 대학교 남원 글로벌캠퍼스 인접 부지를 제안했다. 약 9만㎡ 규모의 사유지로, 유흥건물 3동과, 유흥부지 약 7만㎡를 활용 할 수 있는 부지로 기존 건물을 활용해 이전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대학과 연계한 교육·콘텐츠 협력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남원시는 남원을 거점으로 장



양충모 시장

수·임실·순창 등 전북 지역의 말산업 자원을 연계하는 광역 클러스터 조성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별 특화자원을 연결해 말의 생산부터 교육·관광·복지·연구개발까지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남원에는 본사와 교육·복지·치유·연구 기능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운봉읍 일원에 있는 국유지 약 30만㎡를 활용한 남원시 말산업 관련 시설을 집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지리산권 승마관광, 퇴역마와 부상마의 회복·보호를 위한 말보건복지 거점, 한국경마축산고와 연계한 학생 승마교육,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고, 지역의 전문인력 양

성과 교육·산업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이 추진될 경우 신속한 이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부지·건축물 임대와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포함한 행정 지원방안과 더불어 이주 직원과 가족을 위한 정착금·주거·양육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양 시장은 “남원은 본사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사유지와 대학·바이오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운봉의 대규모 부지를 활용해 말산업 시설을 집적할 수 있다”며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과 전북권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남원·장수·임실·순창이 함께 성장하는 말산업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군민 체감형 혁신정책 아이디어 공모

지역경제·농업·복지 등5개 분야 전 국민 대상…12명 선정·시상

순창군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순창군 혁신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순창을 더 새롭게! 군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제안’을 주제로,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순창군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

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민선 9기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더 활기찬 지역경제 ▲더 풍요로운 상생농업 ▲더 따뜻한 행복복지 ▲더 편안한 생활환경 ▲더 품격있는 문화관광 등 총 5개 분야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 복지서비스 개선, 생활환경 향상, 문화관광 활성화 등 군정 전반에 걸쳐 군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거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순창군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에서 제안서 서

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온라인이나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메뉴 또는 순창군 홈페이지 ‘국민제안’ 메뉴를 이용하면 되며, 이메일(jhh414@korea.kr)이나 순창군청 기획예산실로 우편·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시상은 일반인과 공무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일반인 부문은 금상 60만원, 은상 40만 원, 동상 20만 원 등 총 12명에게 200만 원의 부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인원과 등급은 조정될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의회, 주요 사업장 점검…현장 목소리 청취

기업·일자리·관광 등7개소 찾아 문화·농특산물 연계 활성화 논의

완주군의회(의장 성중기)는 19일 관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주요 사업의 추진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 향후 의정활동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성중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봉동읍 소재 DH오토리드를 시작으로 ▲동해금속 ▲UPS 위험성평가센터 ▲행복+활력 채움센터 ▲운주 과목동천 ▲전통문화공원 및 어린이안전교육종합체험관 ▲대아 농특산품판매센터 및 체험관 등 총 7곳을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기업 및 산업 현장에서는 기업운영 현황과 지역 산업 여건을 살펴보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



<사진=완주군의회>

견을 나눴다.

이어 행복+활력 채움센터와 운주 과목동천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과 시설 운영 여건 등을 살폈으며 사업의 효과성과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또한 전통문화공원과 어린이안전교육종합체험관, 대아 농특산품판매센터 및 체험관에서는 시설 조성 및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을 연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

께 논의했다.

의원들은 각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과 사업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살펴며,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주민 편의 및 지역경제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성중기 의장은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살펴 향후 운영을 확인하고, 지역의 문화·관광활동에 농특산물을 연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제3회 강천산 트레일레이스 24일 개막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자 참가 5·10·20km3개 종목으로 진행

순창군의 대표 관광명소인 강천산에서 가을 단풍을 만끽하며 산길을 달리는 스포츠 축제가 이번 주말 펼쳐진다.

군은 오는 24일 오전 7시 5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강천산 일원에서 ‘제3회 순창 강천산 트레일레이스’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순창육상연맹, 순창발효관광재단 등이 공동 주관하고 순창군과 순창아너스클럽이 후원하는 행사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러너 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스포츠 관광을 접목했다. 참가 자격을 순창군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한 사람으로 정해 지역에 대한 관심과 기부 참여를 높였다.

대회는 참가자의 체력과 경험에 따라 5km, 10km, 20km 등 3개 종목으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강천산 병풍폭포 앞에서 출발해 현수교와 구장군폭포 등 주요 명소를 지나며 강천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만끽하게 된다.

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강천산의 아름다운 가을 경관을 전국에 알리는 동시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지역 방문으로 이어

지는 도농교류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2024년 열린 제1회 강천산 트레일레이스에는 400명이 참가해 4,8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였으며, 지난해 섬진강과 용평산 일원에서 개최된 제2회 대회에는 835명이 참가해 1억 3,300만 원의 기부금을 기록하는 등 스포츠와 기부를 결합한 지역상생 행사로 주목받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고향사랑기부부와 스포츠 관광이 어우러진 이번 대회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인 방문과 교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아동수당 미신청 가구 집중 발굴

완주군이 아동수당 수급 요건을 갖추고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없도록 미신청 대상자 집중 발굴에 나선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지급 대상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완주군의 지급액은 아동 1인당 매월 10만 5천 원이다.

군은 9세 미만 아동 가운데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과

주민등록 전산망 등을 교차 확인해 미신청 가구를 선별하고, 유선 연락이나 우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신청 방법과 혜택을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신청 누락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대상 아동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박혜란 아동친화과장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된 만큼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 초청 문화교류

전통문화·미식관광 자원 홍보 지리산·파미르 고원 교류 모색

남원시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 부부를 초청해 남원의 전통문화와 미식관광 자원을 소개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소통하는 문화 교류 시간을 보냈다.

이번 초청은 남원의 한국형 미식문화관광 활성화와 사업과 연계해 남원 고유의 음식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16일에는 남원시청 시장실에서 킴 샬로히딘 알리딘조다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와 차담을 나누며 양 지역의 문화적 공통점과 문화관광 분야의 교류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리산을 품은 남원과 파미르 고원으로 대표되는 타지키스탄의 자연과 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향후 문화관광 분야의



교류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어 17일에는 남원 예촌 사람마루에서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 부부와 남원시 부시장, 남원시 관광협의회장, 남원 거주 타지키스탄 근로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의 맛과 멋’을 주제로 문화교류 오찬 행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형 미식문화관광 사업을 통해 남원의 우수한 미식 문화 및 관광 자원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계절근로자 맞춤형 근무일지 도입

시간수당 투명화 임금분쟁 예방 고용 능가 영농관리 효율 강화

완주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일지’를 본격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농촌 현장에서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정확한 근로 시간 계산이나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등을 두고 고용주(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해 왔다.

이에 완주군은 매일의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휴일을 고용주와 근로자가 상호 확인하고 서명하는 ‘근무일지’ 제도를 마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특히 근무일지에는 임금명세서 양식인 근무일지용 고용주가 매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 작성과 발급 편의를 높였다.

/완주=김명곤기자

민주평통 순창군협의회, 장류축제서 활동 펼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창군협의회의회(회장 전인백)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제21회 순창장류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평화통일 활동을 펼쳤다.

축제 기간 운영한 민주평통 홍보부스에서는 ▲평화통일 100만 국민인터뷰 참여 ▲통일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 ▲민주평통 홍보 부채 배부 등을 진행했다.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축제 첫날 15일에는 순창발효관광재단 2층 대회의실에서 순창군·대구북구 자매협의회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양 협회의 자문위원과 관

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협회의회 활동과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평화통일 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18일에는 순창장류축제장 무대에서 ‘평화공간 통일콘서트’를 개최했다. 김영옥 단장이 이끄는 북한백두한라예술단 초청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였으며 통일패시온 나눔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전인백 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평화통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교복은행’ 운영 청소년의회 제안 ‘결실’

완주군이 교복과 체육복의 제사용을 통해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완주군 교복(체육복) 은행’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완주군 교복(체육복) 은행’은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장으로 작아진 교복과 체육복을 기증받아 필요한 학생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남비를 줄이고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2025년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실제 행정 사업으로 결실을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청소년들의 참여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청소년 주도형 정책 사례로 꼽힌다.

군은 교복과 체육복을 기증한 학생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자발적인 나눔 참여를 독려하고, 청소년들이 나눔과 자원재사용의 가치를 직접 실천하며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복과 체육복 기증은 연중 상시 접수하며,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는 완주군 청소년센터 ‘고래’에 사전 문의한 후 방문하면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자원 재활용과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이번 교복 은행 사업에 군민과 청소년 여러분의 따뜻한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하반기 발대식…산불 예방 총력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지난 16일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이 30%이상 감소되고 미세먼지가 저감이 되는 등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지원사업은 하반기에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작업을 수행하고, 고추·잡깨·들깨 등 발작물을 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작업은 1인/1일/1ha(3,000평) 이내로 하며 대상지는 고령농(65세 이상), 장애인(거동 불편자 포함),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지 100m 내외 재배 고령 농업인부터 우선한다.

하반기는 추정 30,000천원을 증액해 금년에는 총사업비 170,000천원으로 작년 대비 60% 증액했다. 지난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350ha 농업인에 혜택이 돌아갔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처리가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와 함께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피오리움 기획전시 전통유산 미디어아트 ‘호평’

남원시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에서 진행 중인 기획전시 ‘빛으로 만나는 우리 유산’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7월 개막해 오는 11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전통 유산의 현대적인 미디어아트로 경험할 수 있는 전시로,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청 산하 기관인 국가유산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마련됐으며 피오리움에서 총 7개의 실감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최근 광한루의 국보 지정으로 남원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첨단 미디어아트를 통해 우리 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아울러 기획전시 기간 동안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어린이·청소년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과 31일에는 지난해에 이어 ‘남원의 밤, 피오리움’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블랙라이트 낙서놀이, 어린이 블록 놀이,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EDM 파티, 감성 주막 등을 마련해 야간에도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캠핑 분위기를 더한 휴식 공간과 잔디광장 놀이 공간을 조성해 가족 친화형 야간 문화행사로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장수군, 제4회 모두다함께! 다어울림 명랑운동회

장수군은 지난 17일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장수군가족센터 주관으로 '제4회 모두다함께! 다어울림 명랑운동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족 형태와 세대, 국적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이웃 간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문제표 장수군의회 부의장과 군의원,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군민 등 27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단체 줄넘기와 줄다리기, 계주 등 협동이 필요한 경기에 참여해 서로를 응원하며 힘을 모았다.

가족들은 함께 경기를 치르며 유대감을 다졌고, 다양한 세대의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교류의 폭을 넓혔다.

행사장에는 카펫 키팅 만들기 체험부스와 간식부스도 마련돼 참가자들은 작품을 만들고 먹거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마이산골 정보화마을 농촌 체험·교류 행사 '호응'

진안군 마령면에 위치한 마이산골 정보화마을은 지난 17일 도농 간 교류 활성화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도·농교류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도시민과 가족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시원한 가을바람 속에서 직접 고구마를 수확하며 농촌의 가치와 수확의 기쁨을 느꼈다. 체험을 마친 뒤에는 함께 점심을 나누며 친목을 다졌고, 주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나누는 추첨 행사도 마련돼 즐거움을 더했다.

마이산골 정보화마을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도시와 농촌이 서로의 생활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지는 기반을 다지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사전예약 돌입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임실의 우수 농산물로 손쉽게 김장을 준비할 수 있는 '제11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이 사전예약에 들어갔다.

임실군은 소비자들이 각 가정의 김장 일정에 맞춰 여유롭고 알뜰하게 김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김장체험과 김장재료 판매행사의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장페스티벌'현장체험 사전예약은 오는 11월 6일까지 접수하며, 본행사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 일원에서 열린다.

현장에서 미리 준비된 절임배추와 양념을 활용해 직접 김장을 담글 수 있다.

택배배송과 현장 수령방식의 김장재료 판매행사는 11월 27일까지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소비자는 필요한 시기에 맞춰 절임 배추와 양념을 받아볼 수 있어 김장준비에 드는 수고를 덜 수 있다.

현장수령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운영해 소비자의 이용편의도 높인다.

올해 판매가격은 절임 배추(20kg)와 양념(10kg) 세트 기준 택배비를 포함해 19만 5천원이며, (농)임실현양념(주)에서 직접 수령하면 택배비를 제외한 18만 7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집중 안전 점검 '최우수'

3년 연속 도내 최우수 기관 전문 장비 활용 및 위험 요인 후속 조치 강화

무주군이 '2026년 집중 안전 점검' 추진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3년 연속 전북특별자치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무주군은 2025년 국무총리 표창, 2026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대상 기관으로도 선정되는 등 안전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집중 안전 점검 기간 민생 중심 시설과 안전 취약계층 이용 시설 93

곳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을 진행했으며, 민간 시설 63곳을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안전 취약 요인 발굴에 힘썼다.

무주군에 따르면 분야별 건축, 전기, 소방, 가스 부문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함께 △드론·열화상 카메라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점검,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위험 요인을 점검했으며, △현장 조치가 가능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결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후속 조치하는 등으로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주민 점검 신청제' 운영과 QR코드를 활용한 가정용 자율 안전 점검표 제공, 안전용품(소화 패치, 휴대용

구급 밴드 세트) 배부 등 주민 참여형 안전 문화 확산에 힘썼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이 3년 연속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안전의식 확산과 현장 중심의 점검, 위험 요인 개선, 주민 동참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점검에만 그치지 않는 중대재해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민관·합동 안전 점검을 통한 위험 요인 개선과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민선 9기 공약 구체화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 개최 세부 추진 방안 논의 "군민 삶에 도움 되는 공약부터"

진안군은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민선 9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9기 군정 비전인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진안' 실현을 위해 각 담당 부서에서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사업별 추진 방향과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진안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기본사회 정책을 비롯해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복지 확대, 관광·치유산업 육성 등 주요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군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

장받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진안형 기본사회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복지·주거·교통·교육 등 생활 전반의 기반을 강화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약별 연차 추진 목표와 예산 확보 방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국·도비 확보와 관계기관 협력 필요성, 부서 간 연계 방안 등 공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진안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부서별 실천계획을 재검토하고, 사업별 추진 일정과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해 공약 이행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자살 예방 위한 복지 현장 교육 강화

장수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심화대학 2차 교육

장수군은 장수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군민회관에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복지심화대학 2차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협의체 위원과 담당자들의 현장 대응 능력과 실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을 중심으로 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생명 지킴이 교육'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자살 위험 신호와 고위험군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살 중재 모델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세심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 방법을 익혔다.

특히 복지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복지심화대학을 통해 인간관계 형성과 이해, 통합돌봄 등 다양한 복지분야의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나금례 민간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주변과 이웃에 잠재된 자살 위험군을 세심하게 살피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고독사와 자살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이웃을 살피고 계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복지심화대학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더욱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장수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의회, 제2차 공공기관 전북 우선 배치 촉구

지역 격차 해소·균형발전 위해

진안군의회는 지난 16일 진안군의회 3층 분회의장에서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요 기관을 우선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촉구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요 기관을 우선 배치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군의회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기관의 지역적 분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인재를 연결해 지방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국 각 지역에서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지역별로 기관을 나누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산업



진안군의회는 지난 16일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요 기관을 우선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진안군의회>

의 기반과 기관 간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 기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갑 의장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북이 갖춘 금융·농생명

등 산업 기반과 연계한 주요 기관의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며 "진안군의회도 전북의 균형발전과 진안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 교육생들, 소방관에 따뜻한 한끼

진안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움이 지역사회 나눔으로

진안사통팔달센터는 지난 15일 진안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 일환으로 진행한 향토 음식 교육의 성과로 '소방관과 함께하는 따뜻한 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진안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진안 소방서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향토음식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진안고원 농산물을 활용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소방관 20명을 초청해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

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생들이 교육을 통해 익힌 조리 기술과 향토음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고, 이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교육을 통해 쌓은 역량이 나눔으로 이어지면서 주민 참여형 교육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소방관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환대에 감사를 전했으며, 교육생들 역시 자신들이 배운 것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다(多)가치 배움의 날' 명사 초청 특강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 초청 한반도 평화공존·공직자 역할 모색

장수군은 지난 16일 군민회관에서 공직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다(多)가치 배움의 날' 명사 초청 특강을 열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한반도 평화공존과 민주평통의 역할'을 주제로, 다극화 시대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남북관계의 흐름을 살펴보고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역할과 자세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맡아 △흔들리는 국제질서와 다극화 시대의 변화 △달라

진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평화공존의 길과 국제적 사례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평통의 기능과 역할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강에 참석한 공직자들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 해소와 포용적 평화 문화 조성을 위한 행정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훈식 군수는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다름을 포용하고 평화와 공존의 시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공직자들의 평화 감수성을 높이고 더 포용적인 행정을 실천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귀뚜라미문화재단, 무주 미래 인재에 장학금 전달

75명에게 5천만원 전달

'2026년 귀뚜라미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16일 무주군민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귀뚜라미 장학생은 귀뚜라미문화재단이 무주군 지역 내 중·고등학교 가운데 학교 추천을 받아 선발한 '학업 우수', '예체능 및 기능 우수' 학생으로, 총 75명이 2026년 귀뚜라미 장학금(총 5천만 원)의 주인공이 됐다.

중학생 50명에게 각 50만 원, 고등학생 25명에게 각 1백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 증서가 수여된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과 의원들, 이정수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뚜라미그룹의 최진

민 회장과 귀뚜라미문화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학생과 교사 등 10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감사 영상(만나지역아동센터) 상영,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특별공연 등이 이어져 훈훈함을 전했다.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은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는 평등하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곧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돼야 한다는 소신으로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무주군 학생들도 각자가 가진 재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꿈에 도전하고 마침내 이뤄나갈 앞으로도 응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2026 진안군수배 테니스대회 성황리

진안군은 지난 17일 다목적구장에서 열린 '2026년 진안군수배 테니스대회'가 선수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 80명과 운영요원 등 20명이 참가했으며, 남성 금은배부, 남성 동배부, 남성 신인부, 여성 동배부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참가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각 부문 우승을 향한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 결과, 남성 금은배부에서는 설창국·황규찬 조가 우승, 이종하·박종

성 조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남성 동배부에서는 김웅·송창용 조가 우승, 이광철·심우섭 조가 준우승을 기록했다.

이어 남성 신인부에서는 장사철·류영우 조가 우승, 김창덕·안호양 조가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여성 동배부에서는 한수진·원혜경 조가 우승, 하수정·이정화 조가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진안군 테니스 동호인들의 경기력 향상뿐만 아니라 동호인 간 교류와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진안=전길빈 기자



완주 학래촌, 노인복지센터에 돼지고기 120근 나눔

완주군 구이노인복지센터(센터장 안정현)가 관내 정육업체인 학래촌(대표 정학래)으로부터 돼지고기 72kg(120근)을 후원받아 돌봄 어르신 240여 명을 위한 영양 식사 지원을 펼쳤다.

이번 나눔은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돕고 따뜻한 이웃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센터는 후원받은 돼지고기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가정에 생활지원사를 통해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지원을 받은 한 어르신은 “최근 지수는 물가 탓에 고기를 사 먹기가 부담스러웠는데 든든한 반찬이 생겨 큰 힘이 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안정현 센터장은 “지역 내 어르신들의 식사 관리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학래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진안어린이집 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진안어린이집(원장 문보라)은 지난 16일 진안반다비체육센터에서 원아와 조부모, 학부모, 교직원 200여 명이 함께하는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원아와 부모님은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함께 참여해 가족 간 사랑을 나누고 세대 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체육 활동과 놀이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웃음과 응원 속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아이들은 가족들의 응원 속에서 씩씩하게 경기에 참여했으며, 조부모와 부모들도 함께 어울리며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진안어린이집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고창군 ‘제2회 청년상’ 박세웅·송진웅 씨 선정

청년들의 선한 영향력 조명

고창군 ‘제2회 청년상 수상자’로 박세웅·송진웅씨가 최종 선정됐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2회 청년상 심사위원회’에서 청년기업가 박세웅(37)씨와 문화기획자 송진웅(35)씨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세웅씨는 선문마트를 운영하며 2015년부터 꾸준히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애항청년회 활동은 물론, 2026년 5월에는 사단법인 ‘마음만은 따스한’을 설립



박세웅

해 뜻을 같이하는 청년 사업가들과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6월에는 고창군민 500인분의 식사를 자비로 마련해 나누었고, 7월에는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250인분의 식사 봉사에 나서는 등 나눔을 실천했다.

송진웅씨는 꾸준히 문화기획 활동을 펼쳐온 청년이다. 2023년 ‘문화대장간’ 기획을 계기로, 2024년



송진웅

다.

이후 병바위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알렸으며, 2026년부터 전북청년정책참여단 대표를 맡아 ‘2026년 전북청년축제’를 기획하는 등 지역과 청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2회 청년상 시상식은 오는 24

일, ‘제3회 고창군 청년페스타’에서 열린다. 이날 기념식과 함께 수상자 공적을 널리 알리고, 군민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심사는 단순히 수상자를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본보기를 발굴하는 과정이었다”며, “내년에는 더욱 체계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를 통해 청년상이 지역 최고의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제29회 남원 산동면민의 날면민과 향우 화합의 장

남원시 산동면은 지난 17일 산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29회 산동면민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면민과 향우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산동면 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양충모 남원시장, 한명숙 남원시의회의장, 박희승 국회의원, 윤지홍·임종명 도의원과 손종열·양순철 시의원을 비롯해 관내 기관·단체장, 향우, 면민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발전과 화합을 다지기 위하여 마련됐다.

산동농악단의 풍물 공연을 시작으로 산동초등학교에 장학금 전달과 산동면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한 유공자 시상이 진행됐다.

산동면민의 장에는 △공익봉사장 박영덕, △산업근로장 이우재, △애향장 이명철, △효열장 최금주, △장수상 전순필씨가 수상하였고, 화목상의 윤다희 씨를 비롯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서명원, 김종택, 이병호, 최봉호 씨에게 감사장을, 면 행정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공로상을 수여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농어촌공사, 무주군치매안심센터에 물품 기부

치매친화적 사회 조성 노력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는 19일 무주군치매안심센터에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한방파스 334팩(1백만 원 상당)으로, 무주군의 치매조기검진 홍보와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봉사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양희 무진장지사는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협력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며 “무주

가 치매 친화적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부에 앞서 지난 9월에는 무주군치매안심센터와 무진장지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매 인식 개선과 자원봉사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연말까지 △지역사회 내 치매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치매가 있어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정읍 귀농귀촌지원센터, 500만원 상당 쌀 나눔

지역사회와 따뜻한 동행

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이사장 허삼권)가 이웃과 나누기 위해 약 500만원 상당의 정읍산 유기농 쌀 230포를 기탁했다.

기탁한 쌀은 한 포당 4kg으로, 지역 내 공유농장과 7곳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유기농 농산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생활에 필요한 먹거리를 보태자는 뜻을 담은

다.

19일 열린 기탁식에는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해 허삼권 이사장, 김찬중 초대 이사장, 손인동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센터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와 화합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기탁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활력 있는 농촌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는 활동의 하나로 마련됐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사랑 봉사단, 장학금 300만원 기탁

취약계층 청소년 학업 지원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청소년들을 위해 따뜻한 배움의 사다리를 뒀다. 익산시는 자생 봉사단체 ‘익산사랑 봉사단’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묵묵히 학업에 전념하며

내일의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용기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황천익 회장은 “회원들의 정성으로 모은 작은 온정이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보듬고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드는 나눔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JB특수시스템 김용현 대표장수군에 장학금 전달

장수군은 지난 16일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에 JB특수시스템 김용현 대표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역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꿈과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 완주군에 거주하는 김용현 대표는 직업전문학교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교육자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수군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며 꾸준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김용현 대표는 “학생들을 마주하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며, “청소년들에게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산불은 한순간, 예방은 당신의 손끝에서

작은 실천:
불씨는 꼭 끄고,
담뱃불은 주머니에

당신의 숲을 지킵니다

작은 실수:
던진 불씨 하나,
모든 것을 태웁니다

당신의 미래를 잃습니다

전북타임스 연중 캠페인

신속한 신고, 피해를 줄입니다. 산불 신고 119

〈一事一言〉



누구를 위한 정책자금인가. 농민 흠뻑어찌는 ‘비정한’ 금융 문턱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농어촌을 지키고 흠과 바다를 터전 삼아 새로이 삶을 개척하려는 청년과 농어민들에게 정책자금은 단순한 액수의 돈이 아니다. 그것은 시들어가는 농어촌의 숨통을 트는 마지막 호흡기이자, 국가가 이들에게 건네는 약속의 손길이다. 정책자금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본질적 이유는 명확하다. 자본주의 시장 논리의 최전선에서 있는 일반 시중은행의 차가운 담보·신용 평가 기준을 극복하지 못하는 흠수저 농어민들에게 ‘공적 신용’이라는 날개를 달아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극적 현실은 이 거창한 정책 목표를 비웃고 있다. 담보가 없고 신용이 부족해 농수산업의 첫발조차 떼지 못하는 이들을 돕겠다며 정책자금을 배정해 놓고, 정작 대출 창구인 농협·수협에 가면 “담보가 없다”, “신용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한다. 이 얼마나 자가당착이며 기이한 역설인가.

최근 공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공적 보증서까지 어렵사리 발급받고도 금융기관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공중에 붕 떠버린 정책자금만 최근 5년간 1조 3,000억 원을 넘는다고 한다. 건수로는 1만 건이 넘는 농어민의 꿈이 창구 직원의 냉정한 서류 검토 한 번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공적 보증기관이 “이 농민의 신용은 국가와 공공이 보증하겠다”고 서명까지 해주었는데, 막상 돈을 쥐고 있는 농협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자체 신

용 등급 미달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는 상식 밖의 행태가 버젓이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는 물어야 한다. 농협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 농민의 피와 땀으로 성장했고, 농어촌 발전과 농민 복지 증진을 최우선 명분으로 삼는 농협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더 가혹한 담보 잣대를 대며 농민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위험 부담은 조금도 지지 않은 채 수익성이 보장되는 안전한 대출만 골라 취급하겠다는 몸사리기는 농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기만이다. 담보와 신용이 충분한 농민이라면 굳이 복잡한 절차의 정책자금이나 농신보 보증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 가장 도움이 절실한 약자부터 외면하는 정책금융이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정부와 관료들의 방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정책자금 배정 건수만 실적으로 자랑할 뿐, 실제 현장에서 자금이 집행되는지, 어느 단계에서 막히고 있는지 모니터링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금융기관은 농민들이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철회한 사유조차 전산에 기록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관리·감독조차 손을 놓고 있었다. ‘농·어민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수조 원의 예산을 세워두고, 정작 집행 창구에서의 거절 잔혹사를 방치한 것은 정책의 실패를 넘어 농어민에 대한 국정의 배신이다.

지금의 기형적인 정책금융 구조를 원

점에서 전면 재수술해야 한다.

첫째, 농신보 보증서가 발급된 건에 대해서는 농협 등 취급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정책 이행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 공적 보증을 무력화하는 금융기관의 입김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대출 거절 사유에 대한 엄격한 전산화와 함께, 정책자금 대출 실행률을 농협의 평가 지표 및 정책 지원과 직접 연계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영농 의지와 사업 적성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대출 심사의 전환’이 시급하다. 땅의 가치나 아파트 담보가 아닌, 농민의 팍방울과 미래 가능성을 평가하는 진짜 정책금융으로 돌아가야 한다.

“담보가 없어서 정책자금을 신청했는데, 담보가 없어서 대출을 못 해준다”는 이 기막힌 궤변이 대한민국 농촌에서 언제까지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농민을 위한 금융이라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농민의 사다리를 차버리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농협은 자신들의 안일함이 농어촌의 미래를 어떻게 뿌리째 흔들고 있는지 직시하고, 지금 당장 차가운 담보의 벽을 허물어야.

ㅣ 독자투고 ㅣ

한 번의 용기가 한 생명을 살립니다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멈추는 순간이 있다. 바로 심장지다. 심장지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심혈관질환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심장지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환자를 발견한 최초 목격자의 신속한 판단과 행동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누군가 갑자기 쓰러졌다면 먼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반응을 확인한다. 반응이 없다면 주변 사람을 정확히 지목해 119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요청하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인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한다.

성인은 가슴 정중앙(복장뼈 2번의 아래쪽 중간지점)을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약 5cm 깊이까지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AED가 도착하면 음성 안내에 따라 사용하고, 분석이나 전기충격 중에는 환자에게서 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119에 신고하는 순간부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안내에 따라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응급처치를 이어갈 수 있다.

심폐소생술은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망설이기보다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고, 가슴압박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의 관심과 한 번의 용기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고장소방서도 군민들이 위급한 순간 망설이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창소방서 대응예방과 구급팀 소방교 이동건

사설

여당, 민심의 경고 앞에 초심으로 돌아가라

차기 총선에서 여당보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부 견제론은 47%로 정부 지원론 34%를 13%포인트 앞섰다. 아직 총선까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집권 여당이 가볍게 넘길 신호는 아니다. 국민이 보내는 경고 앞에서 필요한 것은 냉정한 현실 인식과 국정 운영에 대한 성찰이다.

특히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음에도 총선에서는 견제론이 우세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야당에 대한 평가가 낮다고 여당에 대한 불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상대의 실패에 기대 얻는 우위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국민이 집권 세력에 요구하는 것은 경쟁 정당보다 조금 나은 지지율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아진 삶이다.

여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겠다고 했던 약속부터 되새겨야 한다. 민심을 탓하거나 여론조사 수치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다. 무엇이 국민을 지치게 했는지,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는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낮은 자세로 듣고 잘못을 인정하며 고치는 데서 신뢰 회복은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에 공동의 책임

을 지고 힘을 모아야 한다. 당정의 협력은 대통령의 뜻을 일방적으로 따르거나 불편한 민심을 덮는 일이 아니다.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정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관계여야 한다. 내부의 자리와 주도권보다 국민의 삶을 앞세우는 책임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장사가 안돼 한숨짓는 자영업자, 일자리를 찾는 청년, 생산비 부담에 시달리는 농어민에게 필요한 것은 채감할 수 있는 변화다. 물가와 주거비 부담을 덜고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도록 정책과 입법,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 경제지표의 개선이 가계의 온기로 이어지는지도 끝까지 살펴야 한다. 외교와 국방에서도 빈틈없는 자세가 요구된다.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적인 외교와 확고한 안보 태세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여당은 충분한 설명과 설득으로 국정의 신뢰를 높이고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

국민의 마음은 말로만 어루만질 수 없다. 고단한 삶을 이해하는 태도와 약속을 지키는 실천이 함께해야 한다. 여당은 민심의 경고를 국정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집권 세력의 책무다.

▲오늘의시

저녁 / 송기원

새의 그림자가 길게 끌로 가는 것은 누구일까
땅거미가 야금야금 갈아 먹는 것은 무엇일까
붉은 옷의 승려가 사는 서너에서는
마지막 시체가 연기를 피워 올리고
떠난다거나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이미 먼 세상의 일이다
서른세 번, 망자를 거두는 종이 울리면
어렵사리 네가 붙잡은 나마저 사라진다

시인 약력 :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74년 단편소설 ‘경의성 서’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회복기의 노래’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4차례 옥고를 치렀다. 제2회 신동엽창작기금, 제6회 김동리문학상, 제11회 대산문학상 소설 부문 등을 수상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 20일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일대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대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회장 신영배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8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중앙지사	010-8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8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BT

전북 타임스

전북의 힘, 목소리, 정직한 언론

거짓없는보도, 정확한 뉴-스, 신뢰와 책임

언제나 도민과 함께 하는 신문

www.jeonbuktimes.co.kr

장수군 민선9기 출범 100일

성과를 잇고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장수군이 민선9기 출범 100일을 맞아 민선8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본격화한다. 지난 100일은 민선8기 동안 쌓아온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4년간 장수군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화하는 시간이었다.

새로운 정책을 서둘러 내놓기보다 기존 사업의 성과는 이어가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군정의 중심을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두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선8기 장수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 역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5천억원 시대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과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거뒀다.

장수한우랑사과광축제에는 역대 최대 방문객을 기록했고, 장수트레일레이스는 국내 최초로 100마일 코스를 운영하며 장수의 산악자원을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로 성장시켰다.

민선9기 출범 이후에는 그동안 마련한 기반을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재해예방과 도시재생, 농촌 정주환경 개선 분야에 총 366억1,700만원 규모의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국가유산 지정과 농특산물 수출, 한우산업 기반 확충 등에서도 가시적인 결실이 나타났다.

민선9기 장수군은 '모두가 누리는 행복,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를 비전으로 △기본소득을 넘어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모델 조성 △기회가 넘쳐나는 미래농업 육성 △모여들고 성장하는 활력도시 실현 △사계절 사람이 찾아오는 관광도시 조성 △군민과 소통하는 신뢰행정 구현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 민선8기, 군정 전반에서 도약의 기반 마련
민선8기 장수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 역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기준 예산 5천억 원 시대를 열며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 각종 공모사업과 국·도비 확보에 적극 대응하며 농업, 복지, 관광, 정주여건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했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으로 민선9기 핵심정책 추진의 발판도 확보했다.

청렴 분야에서는 군 개정 이래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한 최고등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한 장수군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최근 3년 연속 공약이행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으며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장수군 대표 축제인 장수한우랑사과광축제에도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총 32만 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으며 역대 최대 관람객을 기록했고, 장수한우와 장수사과를 비롯한 지역 대표 농특산물이 완판 행렬을 이어가며 장수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전국에 알렸다.

장수트레일레이스는 장수군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 사례다. 2022년 약 150명 규모로 시작한 대회는 2023년 800여 명, 2024년 3,000여 명, 2025년 5,000여 명이 장수를 찾는 구

예산 5천억원 시대·종합청렴도 1등급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등 민선8기 성과 계승 재해예방·도시재생·농촌 정주환경 분야 366억원 규모 사업 추진 기반 마련

모로 성장했다. 또한 국내 트레일레이스 대회 사상 최초로 100마일 코스를 운영하며 장수의 산악자원을 활용한 스포츠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장수군은 민선8기 동안 예산, 청렴, 기본소득, 축제, 산악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쌓으며 작은 지자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 민선9기, 기본소득을 넘어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모델로

민선9기 장수군정의 핵심은 '기본소득을 넘어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군민 생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토대라면, 기본사회는 소득뿐 아니라 돌봄,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등 군민 삶의 기본 영역을 촘촘하게 보장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장수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장수형 기본사회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민 누구나 삶의 기본 조건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돌봄과 의료, 교통과 주거, 에너지와 생활체육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세심하게 챙긴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지역 현실을 고려해 군민이 익숙한 생활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본사회 실현은 군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장수군의 미래 전략이다.

▲ 366억원 규모 사업 기반 확보...안전하고 살기 좋은 장수

민선9기 출범 초반 가장 두드러진 결실은 재해예방과 도시재생, 농촌 정주환경 분야에서 나타났다.

장수군은 행정안전부의 '2027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신규로 선정되면서 국비 123억2천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46억4천만원을 확보했다. 집중호우 때마다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 위험이 반복된 지역의 하천과 배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장계면 일원은 국토교통부의 2026년 상반기 도시재생 공모 인정사업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장수군은 국비 21억1,300만원을 확보했으며, 지방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39억7,700만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장계어울림센터를 조성한다. 센터에는 마을 공동식당과 작업장, 실내건강교실, 노인교실 등이 들어서 지역 공동체의 생활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반암면 원대론마을과 계북면 어전마을은 '202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함께

선정됐다. 총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노후주택과 슬레이트 지붕, 빈집과 공동시설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천천면 금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도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섰다. 국비 21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해 연평리와 봉덕리 일원의 토사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체류형 쉼터와 문화쉼터 등을 조성한다.

장수군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농촌 어디에서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기회가 넘쳐나는 미래농업 기반 구축

농업은 장수군의 뿌리이자 미래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다. 민선9기 장수군은 '기회가 넘쳐나는 미래농업'을 목표로 장수한우, 장수사과, 장수토마토, 장수오미자, 장수상추, 장수양파 등 지역 대표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농촌 인력 부족, 생산비 증가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과 유통·가공 혁신을 추진하고,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 지역 특화품목 경쟁력 강화, 농산물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농업이 장수의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장수군은 생산부터 유통, 가공, 소비까지 이어지는 농업 전반의 구조를 더욱 탄탄히 하고,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뤄지는 미래농업 기반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 모여들고 성장하는 활력도시 조성

민선9기 장수군은 정주·생활 기반을 확충해 다양한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활력도시를 만들어간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수반향주택 조성사업,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생활 기반을 개선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만들어가고 있다. 장수군은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한 천천 조신지구 상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상수관로 5.5km와 하수관로 2.9km를 설치하고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해 조신마을과 신촌마을 총 57가구에 안정적인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장수군은 청년농업인 유지와 귀농귀촌 지원, 주거와 일자리, 교육과 문화, 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장수에 들어온 사람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사회 구성

인터뷰

최훈식 장수군수



“모두가 누리는 행복,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

민선8기 장수군정은 장수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

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예산, 청렴, 기본소득,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

다. 무엇보다 장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큰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9기는 그 성과를 군민의 삶 속에서 분명히 변화로 이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행정의 성과는 숫자나 평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군민 한 분 한 분이 일상에서 “장수가 달라지고 있다”,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민선9기 장수군의 비전은 “모두가 누리는 행복,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입니다.

장수군은 기본소득을 넘어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모델로 나아가고, 농업과 관광, 정주여건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장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군정의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군민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약속한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오로지 장수군민만 바라보고, 말이 아닌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모두가 누리는 행복,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를 만들어가는 길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으로 활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 사계절 사람이 찾아오는 관광도시 장수

관광 분야에서는 ‘사계절 사람이 찾아오는 관광도시 장수’ 실현에 속도를 낸다. 장수군은 장수누리파크, 장안산 역사숲, 뜬봉샘 국가생태관광지, K-샤머니, 산악관광 자원 등을 바탕으로 사계절 매력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장수누리파크는 가족형 체류 관광지인 누리랜드로 확대해 장수 관광을 이끌 대표 공간으로 육성하고 장안산 역사숲은 계절별 경관관광 명소로 조성한다. 뜬봉샘 국가생태관광지는 장수의 역사를 배우고, 생태와 교감하고, 자연을 토티 느낄 수 있는 생태관광 1번지로 조성한다.

또한 장수 반값여행, 지역상권 소비인증 이벤트, 장수사랑상품권 환급 등 관광객의 방문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정책을 통해 관광과 지역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장수군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머물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통해 100만 관광 장수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목표를

▲ 군민과 소통하는 신뢰의 장수

민선9기 장수군정의 마지막 축은 군민과 소통하는 신뢰행정이다. 장수군은 군정의 최우선 가치를 군민에게 두고, 군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민이 불편을 느끼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고,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복합 민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해 나간다.

또한 종합청렴도 1등급 성과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관행에 머무르지 않는 혁신적 업무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수군은 군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약속한 사업은 끝까지 책임지는 군정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최훈식 기자